

독도활동 자료집

- 독도활동 활성화를 통한 독도사랑 실천 및
지역사회로의 관심 증대 -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독도지킴이

지도교사 : 최현일

20112 박가은

20119 오현정

20320 성예진

20328 이채현

20512 유지혜

〈목차〉

1. 동아리 활동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 추진 배경
- 나. 목적

2. 실태파악

- 가. 설문조사
- 나. 뉴스기사

3. 독도관련 활동

- 가. 독도 캠페인
- 나. 독도명함 만들기
- 다. 독도체험관 견학
- 라. 독도교육-용곡중학교, 사랑어린이집
- 마. 독도 워크북 제작 및 독도 인물사전 만들기
- 바. 독도 홍보 영상시청 및 학내방영
- 사. 독도를 주제로 에코백 및 파우치 만들기
- 아. 캘리그라피로 독도 문구를 적어 편지봉투 꾸미기 및 독도배지 제작 후 나눔 활동
- 자. 독도사랑 UCC 제작 후 학내방영 및 활동자료집 학급게시
- 차. 독도 견학 및 독도 포럼 연구와 발표
- 카. 독도 여행책자 제작
- 타. 대원 독도신문 만들기

4. 결과 보고

1. 동아리 활동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독도와 관련된 교내 활동의 부족함을 느끼고 교내 독도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던 도중 동아리를 구성해 동아리 구성원들이 자치적으로 독도를 주제로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저희끼리의 활동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교생의 독도에 대한 관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독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친구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 땅인지 그 이유와 독도의 지리적 위치 등 독도의 장점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문제 삼고 개선시키고자 이 동아리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전문적이고 정기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고자 저희는 이 동아리 구성원 그대로 학교 내에서 ‘대원 독도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교내에서 보다 더 폭넓게 독도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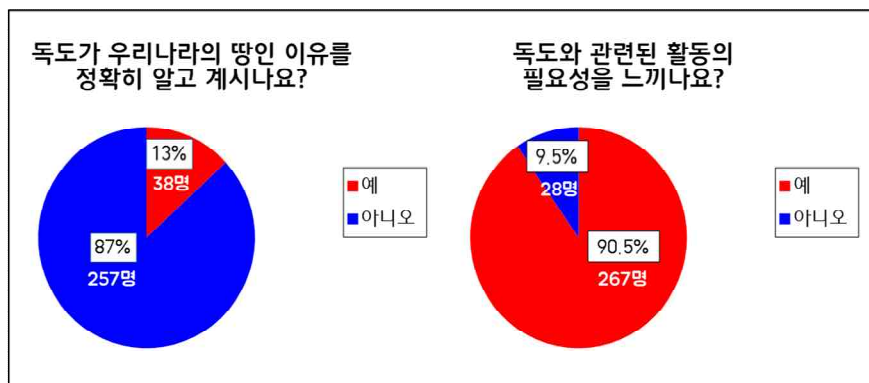
나. 목적

저희의 긍정적인 목적은 제가 다니는 대원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다양한 활동이 저희만의 활동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학교 전체,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동아리 구성원은 아니지만 함께 독도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을 지원받아 학생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독도 활동에 참여하고 독도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된 것을 보고, 직접 참여하고, 결국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독도를 알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 실태파악

가. 설문조사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지식 습득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원학원에 속해있는 세 학교인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 등굣길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은 38명인 13%에 불과했으며,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은 257명인 8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독도와 관련된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한 학생은 267명인 90.5%였으며, “아니오” 라고 답한 학생은 28명인 9.5% 뿐이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 대상이 295명이었다는 점과 대원학원에 속해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설문조사 결과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는 사람이 87%나 되었다는 것을 볼 때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독도와 관련된 활동의 필요성을 90.5%라는 많은 학생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독도 활동의 결핍을 증명함과 동시에 독도와 관련된 활동이 확산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나. 뉴스기사

오른쪽의 기사¹⁾를 보면 현재 독도교육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 교육주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또한 2018년 2월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독도홍보와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으나 아직 왜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희는 독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학생들이 보다 더 실질적인 독도교육을 받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던 도중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던 주입형 독도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독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아리의 역할은 보다 더 체계적인 독도활동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회 > 사회일반

"독도는 우리땅인데"...내실없는 독도교육

등록 2018-03-22 15:46:14 | 수정 2018-03-22 17:29:59

피상적 교육...체계적 학습 어려워
"적만 나눠주고 수업은 안해"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알기 쉽지 않아"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세종=뉴스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당국이 되풀이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해도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알맹이 없는 허울뿐인 독도교육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중고교 학생들이 수업중 독도가 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인데다 독도교육 관련 교과서 진질, 교사 양성, 독도자료 개발 등 정부의 종합적인 독도교육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매년 4월중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A군은 "지난해 독도교육주간이 있었지만 적만 나눠줬을 뿐 수업을 하진 않았다"며 "시험에 맞춘 채 나온다고 해서 나눠준 복사물을 돌기만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독도홍보와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정원이 진형되고 있다. 게시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저조차도 독도가 왜 한국 고유의 영토인지 알기 쉽지 않았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가 왜 한국 고유의 영토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썼다.

positive100@newsis.com

3. 독도관련 활동

가. 독도 캠페인

독도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은 자율동아리가 결성된 후 바로 독도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 방학식 하루 전인 7월 25일까지 2주에 번씩 대원여자고등학교의 등굣길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독도사랑을 실천합시다.”, “독

1) 뉴스시스, 「“독도는 우리땅인데”...내실없는 독도교육」, 백영미 기자, 2018.03.22.

도를 지키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라는 문구를 외치며 저희 학교 학생들이 독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고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가 아니었던 독도를 아침에 등교하면서 듣게 함으로써 독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만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아닌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아차산역)까지 걸어가며 독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에서 사람이 많은 토요일에 독도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이, 중년층, 노년층 모두 독도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들고 있는 독도피켓에 적힌 문구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몇몇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희가 한 하나의 작고 사소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독도사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희망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나. 독도명함 만들기

우리가 진정 독도를 지켜야 하는 독도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 5월 16일 하교 후에 독도명함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동아리 구성원끼리만 만드는 것이 아닌 독도명함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원받아 독도명함을 여러 명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명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그 명함이 독도지킴이라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은 독도명함 제작에서 그치는 활동이 아니라 독도와 관련된 기존에 있던 직업과 새로운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지 탐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독도와 관련된 직업은 독도 관련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독도 인근 어업 종사자 등 많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독도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할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독도명함을 만들어보니 내가 진짜 독도에 대해 많이 배워서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도명함 만들기 이후 자신의 가방에 독도명함을 달고 다니거나 이름표 밑에 독도명함을 같이 달고 다니는 등 독도명함이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2학기 때 또 이런 활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독도명함 만들기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독도체험관 견학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저희는 동아리 구성원들과 친구들 몇 명과 같이 독도체험관에 견학을 갔습니다. 독도체험관 안의 시설이 매우 좋고 독도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체험관임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 없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독도 체험관을 홍보해 학생들이 보다 더 다양한 독도와 관련된 활동을 직접 ‘체험’ 해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도체험관에는 독도의 식물과 곤충, 독도의 옛주민과 현재주민, 독도의 기후, 독도 지형의 특징, 독도 화산암, 세종실록지리지, 안용복, 김윤삼 노인 등 인물에서부터 자연환경까지 사람들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땅인 독도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고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체험관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이 체험관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도라는 섬은 매우 작은 섬이지만 그 안에는 풍부한 역사와 지하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독도체험관에서 저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것을 학생들에게 최대한 제공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직접 체험관으로 갈 시간이 없거나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직접 체험을 한 우리를 한 번 거쳐서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고자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대원 독도신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라. 독도교육-용곡중학교, 사랑어린이집

2018년 5월 25일,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은 몇몇 선생님이 꿈인 친구들과 독도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용곡중학교에 독도교육을 하러 갔습니다. 대원독도지킴이에 속한 사람들 중 과반이 용곡중학교 출신이었으며 서로 대화를 하던 도중 용곡중학교에서도 독도사랑 실천이 부족하며 독도교육이 활성화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 우리가 직접 용곡중학교에 가서 독도교육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곡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단기방학이었지만 용곡중학교는 학교에 나오는 날이었던 25일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 용곡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이번 독도교육도 그저 형식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입식의 교육이 아닌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형 교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려줄 수 있었고, 학생들은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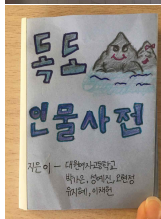
용곡중학교에서 교육을 한 후 용곡중학교의 상담실에 모여 저희가 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피드백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독도를 학생들이 친근한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고자 2018년 6월 23일, 상왕십리에 있는 사랑어린이집에서 다시 한 번 더 독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용곡중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했던 것이었으나 사랑어린이집에서는 2세~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하는 것이었기에 아이들이 독도를 친근한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독도와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독도에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독도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는 등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독도교육을 할 때 집중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독도교육을 한 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한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 한 가지는 동화책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수준이 높아 그림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읽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동화책을 찾으면서 어린 친구들이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읽을

만한 독도와 관련된 동화책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문제 인식을 하여 우리가 사후활동으로 직접 독도동화책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 독도 워크북 제작 및 독도 인물사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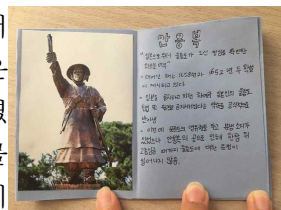
2018년 6월 2일에 저희는 동아리 구성원 중 한 친구의 집에서 모여 독도 워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독도 워크북 제작은 저희들의 독도와 관련된 지식과 개념을 체계화시키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며 그 친구의 언니도 함께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워크북을 제작하며 독도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번에는 저희 동아리 구성원에서만 국한된 활동으로 끝이 났지만 다음에는 교내 독도활동으로 독도워크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동아리에 속해있는 우리 학교 총학생회장, 부회장을 통해 학교에 이 활동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교내 독도활동으로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분명 독도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인물에는 누가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속 인물에는 누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은 2018년 6월 9일에 독도 인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독도 인물사전을 만들며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의 이력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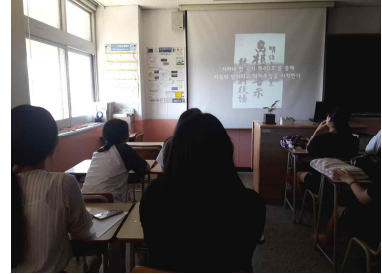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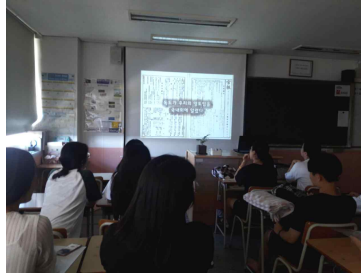
래에 나오는 신라장군 이사부와 어부 안용복, 박어둔, 이규원, 홍순철, 독도의용수비대에 속해있던 인물 등 10여 명의 독도 인물을 사전에 소개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게시판에 저희가 직접 만든 독도 인물사전을 게시해 많은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된 인물에는 누가 있는지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대원여자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독도 인물사전에 관심을 보이시며 각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인물사전 덕분에 알게 되었다고 하시고 우리 학교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시는 등의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바. 독도 홍보 영상시청 및 학내방영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은 항상 글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독도에 대해 배우다 보니 독도와 관련된 영상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고 독도에 대한 영상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찾던 도중 ‘독도연구소’ 라는 사이트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독도 관련 많은 영상을 시청하고 독도연구소에 있는 독도 영상도 시청했습니다. 많은 영상을 시청한 후 우리가 시청한 영상 중 독도에 대해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영상 하나를 정해서 조회 시간에 대원여자고등학교의 1학년과 2학년 반 전체에 방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대화 끝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 딱 적절한 영상이 독도연구소에 있는 ‘독도 홍보 영상’ 이라는 의견으로 일치해 대원여자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동의를 얻고 방송부의 도움을 받아 이 영상을 2018년 6월 15일에 학내 방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태도를 보였고 영상이 끝난 후에도 서로 옹기종기 모여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영상에 대한 퀴즈를 내면서 서로 얼마나 영상을 집중해서 보았는지 알아내고 옆의 친구가 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는 등 독도 영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점점 독도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학생들이 많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 독도를 주제로 에코백 및 파우치 만들기

2018년 6월 20일에 독도를 주제로 에코백과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고 우리에게 있으면 유용한 에코백과 파우치에 자신이 직접 독도를 주제로 무늬를 넣고 꾸미면서 독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넓고 얕은 지식만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우리에게 항상 배워야지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독도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의 활동을 통해 독도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심리적으로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아리 구성원만의 활동으로 국한지어 했지만 다음번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많은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친밀감 형성과 주권인식 함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만든 독도 에코백과 파우치를 각자 가져가지 않고 학교의 곳곳에 비치해두어 이런 활동도 독도를 지키는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음을 내포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학생들은 독도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캘리그래피로 독도 문구를 적어 편지봉투 꾸미기 및 독도배지 제작 후 나눔 활동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으로 캘리그래피를 신청하여 수업을 들었던 4일차에 선생님께 열심히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던 도중 독도와 관련된 문구를 쓰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가 직접 한 물건에 쓰고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나눔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편지봉투 겉면에 독도 관련 문구를 작성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캘리그래피를 배우는 5일차가 되던 2018년 7월 14일, 캘리그래피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 수업이 시작하기 전 독도와 관련된 문구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같이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침 저희 캘리그래피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독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얼마 전에 독도대회에서 서예부분에 캘리그래피로 쓴 독도관련 문구를 제출하셔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를 부탁한 후 오늘 수업은 아예 독도에 집중을 하자고 하시며 독도관련 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캘리그래피로 독도와 관련된 문구를 작성한 편지지를 지역사회에서 나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도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몇 장을 손수 쓰셨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아리에 속해있지 않은 학생들도 독도와 관련된 문구를 작성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고 이런 방식으로 독도에 접근하니 독도가 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캘리그래피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을 같이 들은 학생들과 함께 독도배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배지도 나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했습니다. 독도배지 도안을 제작하며 독도배지를 보는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 함양과 독도사랑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주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바쁜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독도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자 2018년 7월 28일과 7월 29일에 이틀에 걸쳐 캘리그래피로 독도 문구를 작성한 편지봉투와 독도배지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도와 다르게 몇몇 사람들은 말을 무시하시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거냐고 의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게 편지봉투를 받아주시고 독도사랑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는 저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저희의 나눔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가 학교에서 독도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에게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이번 대원독도지킴이 활동 덕분에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겼고 이로 인해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는 매우 잘 설명해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잘 설명을 해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특해하시며 그 주민분도 독도에 대해 더 공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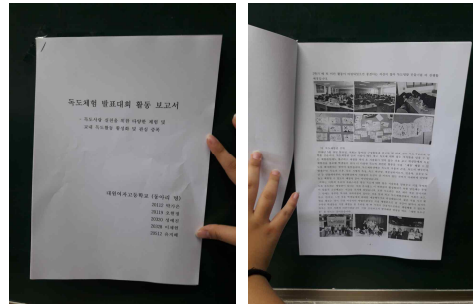
자. 독도사랑 UCC 제작 후 학내방영 및 활동자료집 학급 게시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이 독도와 관련된 활동들을 무엇을 했는지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UCC 안에 요즘 학생들이 취미로 즐겨듣는 가요가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로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UCC로 저희 대원 독도지킴이가 했던 활동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면서 우리가 한 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저희 동아리의 활동 전과 후를 비교해보며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인지해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플래시몹 활동을 하며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글씨를 저희가 직접 쓴 티를 입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희의 춤을 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추었습니다. 저희의 티를 보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듣고, 저희의 춤사위를 보고 지나가시던 주민들이 “독도는 우리땅, 파이팅!”이라고 해주시고 “아이고, 학생들이 참 기특하네. 이런 생각도 다 해내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독도에 대한 눈길 한 번,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2018년 7월 16일과 7월 17일 이틀에 걸쳐 대원여자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모든 반에 저희가 제작한 독도 UCC를 방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플래시몹을 보며 다시금 깨닫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독도 UCC 학내 방영

을 통해 저희가 한 활동을 저희만의 활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전교생과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독도활동에 흥미를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독도 활동’이라는 것에는 얼마나 다양한 활동이 있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 증진과 더불어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과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꾸준히 있을 독도활동의 방향성을 알리고 이를 격려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7일, 독도 UCC를 학내에 방영한 후 우리 동아리가 결성된 취지가 무엇이었으며 학교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의 활동자료집을 각반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게시된 활동자료집을 보고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한 줄 몰랐다면 놀라워하고 앞으로 이런 독도와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 독도 견학 및 독도 포럼 연구와 발표

‘울릉도 및 독도 견학’이라는 학교 프로그램이고 생겨 저희 동아리인 대원 독도지킴이에 속한 구성원 중 3명이 2018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2박 3일로 울릉도와 독도에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원래 일 년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독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동도에서 내려 ‘독도 이사부길’이라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역사 속 인물



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흥미로워 서울에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동아리 구성원 및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포함해 같이 독도에 갔던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나라 국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관심과 사랑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였으며 애국심이 독도 전체를 둘러싸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도에서 머무른 20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으며 우리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독도를 간 것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독도로 가는 체험학습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도 견학을 갔다 온 후 2018년 7월 25일에 ‘독도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에 대해서는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알 수 있었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무관심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희의 독도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이 타 국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타 국가

사람들까지도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게 되었습니다.

카. 독도 여행책자 제작

독도 견학을 간 후 2018년 7월 24일, 저희는 동아리 구성원들 중 독도에 견학을 갔던 친구들과 독도 여행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독도에서는 고작 20분만 머물렀기 때문에 독도의 내용만으로 독도 여행책자를 구성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2박 3일 동안 주로 머무르며 여러 곳에 견학을 갔던 울릉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여 독도 여행책자를 구성했습니다. 독도 여행책자를 제작하며 우리가 견학에 갔을 때에는 그저 보고 지나쳤던 것들에 어떤 원리가 담겨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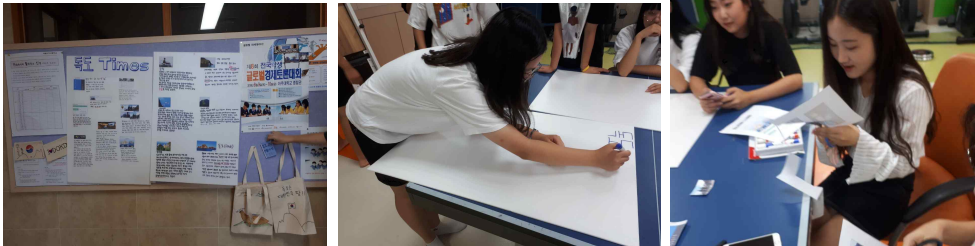
저희가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저희 학교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여행책자에 있던 독도 이사부길과 독도 안용복길을 보고 독도의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이 도로명주소인 것에 흥미를 가졌고 울릉도의 봉래폭포에 가는 길에 있는 천연에어콘도 천연이니 환경오염이 될 일도 없고 더운 날씨에 무료로 들어가서 땀을 식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울에도 길 곳곳에 천연에어콘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도 여행책자를 통해 독도를 간접 견학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다음에는 직접 독도 견학을 가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타. 대원 독도신문 만들기

독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사이트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처음에는 저희가 독도 워크북을 만들기 위해, 독도 인물사전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했었지만 대원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 사이트들을 소개받고 학교에서 직접 활동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독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독도 관련 사이트에 흥미를 가지고 독도체험관 등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에 가본다면 학교에서는 시공간적 한계로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해볼 수 있고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원독도신문을 만들어 학생들이 잘 모르는 독도 관련 사이트와 독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독도에는 동도와 서도, 강치, 코끼리바위 등 매력적인 장소와 생물이 있습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소개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독도신문에 독도의 매력적인 장소와 생물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독도에 대해 알 수 있고 독도와 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독도신문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은

더욱 폭넓은 독도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4일에 동아리 구성원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과 함께 독도신문을 만든 후 8월 6일에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8월 6일은 방학 중이므로 방학 중에 게시를 해 놓은 후 학생들은 개학을 하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특히 독도 관련 사이트와 체험관을 설명해준 부분에서는 더 다양하게 독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독도의 바위들과 강치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서는 독도사랑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과 보고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도명함 만들기, 독도배지 제작 등을 실시하고 독도 홍보 영상을 학내 방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교내 독도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원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독도사랑 실천에 기여하였으며 더불어 대원학원에 속해 있는 대원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한 세 개의 학교인 대원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원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전교생에게 독도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독도 관련 사이트와 체험관을 홍보하여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독도지킴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이 단편적인 활동이 아닌 장기적인 활동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독도배지 및 독도워크북 제작, 독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자율동아리인 대원독도지킴이가 우리 학교의 상설동아리로 자리 잡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가 대원학원을 대표하여 학생들이 독도활동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도배지 제작, 독도명함 만들기 등 독도 체험을 제공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